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Hoohee Lee¹, Bora Jeon², Hyoungjun Won^{3*}

¹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3}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Objective]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analysis of Catholic education research trends by utilizing multiple academic paper search engines. Through keyword searches such as ‘Catholic,’ ‘education,’ ‘Catholic education,’ and ‘faith education,’ we identified important keywords, centrality, and performed CONCOR analysis among the papers retrieved. This enabled us to gain insights into the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Departing from conventional literature reviews, it aimed to explore the evolution of research in Catholic education, emphasizing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keywords through an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 of keyword network analysis.

[Conten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entrality of major keywords in academic journal articles related to Catholic education included terms such as ‘Catholic Church,’ ‘education,’ ‘catechesis,’ ‘faith,’ and ‘Christ.’ In the TF-IDF analysis indicating keyword importance, terms like ‘religious education,’ ‘youth,’ ‘Korea,’ ‘theology,’ and ‘character’ emerged at the forefront. Finally, the CONCOR analysis related to Catholic education research defined groups such as ‘history and direction of catechesis,’ ‘ethical education of educators and schools,’ ‘holistic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and ‘practical faith educatio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analyzing the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is expected to broaden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atholic education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Additionally, it offers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in Catholic education research through this comprehensive analysis.

[Keywords] Catholic education, Semantic network analysis, Research trend analysis

* **Corresponding to** Hyoungjun Won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Liberal Education, Education Innovation Institute)
E-mail : wonpetrus@cup.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언어네트워크분석에 따른 가톨릭교육의 국내 연구동향

이후희¹, 전보라², 원형준³

¹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교수, ^{2,3}부산가톨릭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술논문 검색기를 통해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 등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가톨릭교육에 대한 중요 키워드, 중심성 및 CONCOR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가톨릭교육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문헌연구 및 고찰 방식과 달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키워드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톨릭교육의 연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결과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였고, 키워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서는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톨릭교육 연구 관련 CONCOR 분석에서는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실천적 신앙교육’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은 통합적 관점에서 가톨릭교육의 이해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톨릭교육의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가톨릭교육, 언어네트워크분석, 연구동향 분석

I. 서론

세계인권 선언 제26조 및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교육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문헌들을 통해 세상과 교육의 위기에서 가톨릭교육기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그중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양도할 수 없는 교육의 권리를 천명하였다. 공의회가 말하는 참 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 그 사회의 책임을 맡는 것”(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5: n1)을 뜻한다.

가톨릭교회에서 추구하는 온전한 인격적 성숙과 성인으로서 책임감은 단기간에 형성할 수 없기에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사회 진출 직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교육이면서 기존의 중등교육을 기반으로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의 문헌과 가톨릭교육성에서도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톨릭교육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대학교¹⁾가 본질적으로 진리탐구를 추구하는 대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가톨릭의 정체성을 추구해야 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한 교황은 “모든 가톨릭대학교가 가져야 할 가톨릭적인 특성”을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교적 영감을 지녀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 한 인간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복음의 메시지를 존중해야 한다. 넷째, 지상의 삶을 순례하는 교회의 숙명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해야 한다(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1990: n1-13). 가톨릭대학교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주는 영감과 빛을 자신의 사명으로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가톨릭대학은 대학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가톨릭적 인간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공동체이며 가톨릭 사상을 구현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1990: n.14).

교황청에서 가톨릭교육을 주관하는 가톨릭교육성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소통의 창구로써 가톨릭학교의 역할을 천명하였다.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핵심이 폐쇄와 개방과 같은 변증법적 발전단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현가능 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교육자는 개인의 생존을 넘어 인간의 공존에 필요한 자기초월을 추구하게 된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n.45).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교회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을 맡

1) 본고에서 “가톨릭대학(교)”은 교회 문헌에서 나타난 가톨릭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을 언급할 때 사용하며, “가톨릭대학교(CU)”는 서울에 소재한 가톨릭대학교(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

하며 가톨릭학교를 중심으로 구현되지만,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 교리교육의 범주도 포함되기에 가정이나 주일학교에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 앞서 가톨릭교육과 이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종교교육, 교리교육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자 한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를 내포하는 모든 단체(학교, 본당, 기관 등)는 가톨릭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적 교육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고, 친교를 맺는 인격체로서 개인의 노력과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맺는 인간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빛날 뿐 아니라 관계의 범위도 확장되고 다른 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부적인 인간 초월적 존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형이상학과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의사소통을 넘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온전한 내어줌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주는 교육적 행동과 맥을 같이한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46).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단순한 삶의 길을 넘어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전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모든 행위의 밑바탕에 삼위일체적 사랑을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복음의 증언과 모든 이에 대한 자유롭고 열린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가톨릭교육은 “학교의 모든 상황, 곧 전체적이고 다양한 학과목에서 바라본 인간 지식에 대한 관점, 모든 이의 통합과 권리와 관련하여 문화 간 접근법을 발전시키는 데에 관심”을 둔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61).

가톨릭교회 인간관은 지·정·의(知·情·意)나 지·덕·체(智·德·體)의 조화를 이루는 인간상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심,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문화적 교양, 정서적 균형, 적절한 창의력, 낙관적인 성향, 협력적 관계, 진정한 사랑에 대한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요약하면 가톨릭교회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전인교육의 완성은 종교교육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Won, 2011: 36). 왜냐하면 종교교육은 “단지 종교에 대한 지적 동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전 존재를 귀의”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1977: 50).

교리교육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수행해야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교리교육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교리교육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생활에 대해 배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다(Catechesi Tradendae, 1979: 1-5).

종합하면 가톨릭교육은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위일체적 신비 안에서 인간의 완성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적인 교육은 종교교육의 차원으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교리교육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리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의 차원을 넘어 온전한 가톨릭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교육을 일컫는다.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포괄적인 특성이 있으며, 종교교육, 전인교육, 교리교육, 신앙교육 등의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이 학교라는 교육현장에 국한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개념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가톨릭교육의 개념이 가지는 포괄성을 고려한다면, 학교라는 차원을 넘어 교회 및 사회 전체로 연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RISS에 게재된 가톨릭교육에 대한 논문의 초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가톨릭교육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연구 및 고찰과 달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토대로 키워드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가톨릭교육의 연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은 통합적 관점에서 가톨릭교육의 이해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톨릭교육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향후 가톨릭교육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의 게재 현황 및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동향’ 연구는 특정 학문 혹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Byun, Lee, & Kim, 2010: 123-124). 본 연구 또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행된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가톨릭교육 영역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앞으로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연구 주제 및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수행된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동향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톨릭교회의 문헌을 바탕으로 한 가톨릭 학교의 교육 사명과 정체성 구현 관련 연구이다. 김경이는 가톨릭학교교육에 관한 교회문헌인 ‘그리스적 교육에 관한 선언’,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교황청 교육성서’,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신앙의 증인들: 교황청 교육성서’를 근거로 하여 가톨릭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가톨릭학교교육의 목적과 사명, 청소년의 교육권리,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Kim, 2004: 97-119). 같은 맥락에서 원종철은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된 교회의 문헌 탐색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말하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교육 목적과 가톨릭 학교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Won, 2005: 98-138). 최준규 또한 바티칸에서 발간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 문헌 및 국내에서 발표된 종교교육 관련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가톨릭계 학교의 종교교육 개념, 목적, 방법적 원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Choi, 2005: 309-333).

심상태는 한국 가톨릭대학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래 시행해온 신학 교육의 현실을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Shim, 2009: 155-194). 그는 전체 신학 패러다임의 서구 지향성이 한국 신학 체계의 미성숙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학 교육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톨릭대학교가 공통의 권리와 과업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본만은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에 따라 사명 구현을 위한 실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Koo, 2009: 173-212). 그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사명의 세 가지 실천 방향성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때 ‘전문성’, ‘학습성’, ‘공동체성’이라는 교육학적 용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하며, 가톨릭 학교는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교 덕목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본만은 다른 연구에서 교육관련 교회문헌, 성경 및 예수의 교육관, 가톨릭 윤리신학 및 영성신학, 인격 개념의 역사적 논의와 현대 인격교육 운동의 흐름 등을 탐색함으로써 가톨릭 학교의 사명인 ‘그리스도교적 전인교육’의 의미를 드러내는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Koo, 2011, 83-134). 이원봉은 대학교육의 위기를 가치관 교육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인성교육이 인간의 영성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Lee, 2016: 85-110).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 간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 및 관련 환경 변화에 대한 김홍주와 조영관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성을 확립하고 종교 교과서의 활용을 증대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im & Cho, 2018: 103-136). 또한 종교교사의 양성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학생들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종교교육이 필요함을 밝혔다.

임민균은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가톨릭대학의 정체성과 사명을 살펴보았으며, 가톨릭대학이 정체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학적 문제와 과제를 직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써 종교교양교육의 중요성을 탐색하였다(Im, 2020: 29-46). 이를 토대로 가톨릭대학교(CU)가 ‘가톨릭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종교교양교육을 통해 실현되도록 구성했는지, 각 종교교양교육 개별 과목이 추구하는 목표와 과목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혔다. 또한 가톨릭대학교(CU)의 종교교양교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교육 연구이다. 성기선은 가톨릭계 중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종교교육 전담 교사 확보 및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차원의 변

화와 연구활동 추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eong, 2001: 83-101). 구분만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한국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에 발맞춰 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영성의 원리에 따라 지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그리스도 교적 전인 교육과정 형태로의 변화’가 공교육의 종교교육 목적과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동시에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Koo, 2011: 63-100).

조영관은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Cho, 2016: 103-128). 그는 ‘2015 종교학 개정 교육과정’과 교육 당국이 지향하는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종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접근 방식이고 그 교육적인 성과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학생들이 가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가운데, 각 공립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과 교육적 사명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영적 발달, 종교심 함양, 도덕성·인성 발달, 생명 존중, 타종교에 대한 개방성과 존중감 등의 보편적인 교육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한 방식의 종교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육정신이라는 점과 교육 당국이 추진해야 할 교육 방향임을 제안하였다.

셋째, 가톨릭 교사의 사명과 역할, 지원사항에 관한 연구이다. 이미선과 김경이(2017)는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 실천에서 교사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Lee & Kim, 2017: 117-143). 그 결과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계획된 종교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갈등은 종교교육에 대한 다른 교사들과의 인식차이, 종교교육과 가톨릭교육이념 구현 간의 간극, 종교교육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 부족, 교재활용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김다솔과 김경이는 가톨릭 계열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가톨릭 종교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치원에서 가톨릭 종교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 대상 지원 사항을 도출하였다(Kim & Kim, 2019: 137-170). 그 결과 가톨릭 유아 종교교육과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 국가 교육과정과 가톨릭 종교교육의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교사들의 종교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교사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종교적 분위기 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넷째, 교리교육 관련 연구이다. 정신철은 복음선포적 교리교육의 기원과 그 이론적 기초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내용 중심의 교리교육에서 오는 현실적 한계, 내용 중심적 교리교육의 현

실 적용 부족 문제, 교리를 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 문제 등의 한계를 도출하고 교리교육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Jung, 2005: 5-48). 박종주는 신앙 안에서의 삶에 관한 주제들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통해 비판적 검토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교 이야기와의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만남을 통해 삶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상관관계 교리교육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교리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Park, 2021: 21-56). 곡진상은 2020년 발행된 교리교육지침과 과거의 교리교육지침을 비교하고, 새롭게 부각된 발전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그 새로움이 한국교회의 교리교육, 특히 청소년의 교리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Kwak, 2022: 193-238). 그는 청소년은 단순히 교리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음선포의 능동적 주체이며 주역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들을 동반하는 교리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미영은 기후 위기 및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가톨릭 주일학교 복음화를 위한 생태영성 교리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인간은 역사의 한 맥락에서 살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상 안에서 자연과 사람, 하느님과의 우정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Lee, 2022: 204-233).

다섯째, 어린이와 청소년 신앙교육 관련 연구이다. 김남철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대해 탐색하고, 교리교육의 에듀케이션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Kim, 2011: 168-208). 또한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복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상인은 「어린이 미사 지침」을 통해 오늘날 어린이를 위한 일반적인 전례 교육 방향과 방법에 대해 탐색하였다(Kim, 2014: 7-61). 그는 어린이들이 전례 안에서 만나게 되는 ‘전례적 표지와 상징과의 대화’가 가능할 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발그니는 발달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신앙교육의 방법과 과정, 청소년 신앙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신앙심, 교리교사들이 교육학적 심리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였다(Cho, 2014: 166-201).

지금까지 살펴본 가톨릭교육 연구의 영역 외에도 다문화 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에 대해 탐색한 연구(Kim, 2011: 39-72), 신자 재교육 연구(Kim, 2018: 157-191) 등 다양한 주제의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재용과 최준규가 최근 수행한 가톨릭 학교 교육 연구동향 분석 연구 외에 가톨릭교육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Lee & Choi, 2023: 21-39).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톨릭 학교 교육에 관한 국내 학문적 축적이 적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톨릭교육 연구를 통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기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가톨릭교육 연구동향 분석 또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국내 가톨릭교육 연구 영역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의사소통 메시지에 적용되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메시지 안에 있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여 의사소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이는 공유된 의미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Jang & Choi, 2012: 55). 중요한 정보는 보통 중요한 단어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어와 언어가 함께 얼마나 사용되는지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 과정일 것이다(Kwon & Chun, 2013: 109).

텍스트 데이터는 비구조적인 자료로, 최근 몇 십 년 동안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고 저장되고 있다. 컴퓨터에서 작성된 문서는 일정 범위의 정수값으로 변환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문자 인코딩이라고 한다. 문서를 작성할 때 알맞은 형식으로 변환하여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며, 이를 컴퓨터는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 형태로 표시해 준다(Kim et al., 2020: 7).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는 컴퓨터 내부에서 정수값으로 처리되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될 수 있는 자료 형식으로 명시할 수 있다. 구조화된 통계적 자료는 수학적 연산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통계적 자료가 분석을 위해 일정한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인코딩한 정수 값은 연산이 가능하더라도 정량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으므로, 단독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중 하나는 모호함과 다의성이다. 언어는 종종 한 단어로 표현되는 개념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통계적 자료에서는 숫자의 크기만으로도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텍스트는 전체 문맥을 이해한 후에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언어적 개념은 미묘하고 추상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 조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개념 간의 언어적 관계를 정의하고 이 관계에 따라 단어 사용 유형 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람이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컴퓨터는 한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같은 의미로 오해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내 노드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높은 연결중심성은 해당 노드가 주변 노드들과 강력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 정보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다르게 표현하면,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하며, 그 영향이 더욱 확장되기 쉽다는 의미이다(Lee, 2018: 242).

다만, 연결중심성은 한 키워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수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되기 때문에, 두 단계 이상 떨어진 간접적인 관계는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은

주로 한 키워드의 근처에서 중요성을 평가하는 ‘지역(local) 중심성’을 강조한다.

2)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는 빈도 가중치 모델이라고도 하며, 특정 문서에서 단어의 상대적인 빈도를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Park et al., 2022: 716-717). 텍스트에서 TF는 문서 내 특정 키워드의 빈도수, DF는 여러 문서 내의 특정 키워드 빈도수, IDF는 DF의 역수를 의미한다. 즉 TF-IDF는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포함한 단순빈도 분석이 아닌 전체 문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IDF는 특정 단어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해당 단어가 문서 집합 전체에서 드물게 나타나지만 특정 문서에서 자주 사용될수록 높은 가중치를 갖는다. 따라서 TF-IDF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에서 흔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문서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3)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CONCOR 분석은 단어들 간의 동시 출현 행렬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의미 분석간 키워드들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같은 집단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단어들로 구성된 군집을 도출할 수 있다.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분석에 포함된다. 구조적 등위성이란 키워드들의 연결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며, 키워드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분석 방법이다(Kang et al., 2018: 17).

쉽게 말해, 텍스트 안에서 단어들이 함께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를 기반으로 단어들 사이의 관련성을 찾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가 ‘과일’과 자주 함께 나타난다면, 이들은 서로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CONCOR 분석은 이러한 연관성을 찾아내고 단어들을 그룹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텍스트 안의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째, 전국 가톨릭 계열 대학교 OPAC,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학술논문 검색기에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된 학술지의 제목, 저자, 학술지명, 권호, 발행처, 연도, 초록 등과 같은 상세 정보를 Excel로 저장하였다.

셋째, 다수의 문헌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인과 함께 Excel 파일에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읽어가며 연구 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때, 국문 초록을 제공하지 않는 문헌, 중복 문헌을 제외하고 최종 49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2. 분석과정 및 방법

1) 빈도 분석

연구동향 분석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도별로 연구가 진행된 빈도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추이를 분석하였다.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절차에 따라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첫째, ‘가톨릭’, ‘교육’, ‘가톨릭교육’, ‘신앙교육’ 관련 국내 학술 논문(등재지, 등재후보지)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후 전문가와 함께 대상 논문을 최종 49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 학술지의 국문초록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코딩을 하였다. 키워드 추출을 위해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다수의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인 텍스트톰(Textom)이다. 키워드 추출 전 키워드 간 관계를 왜곡시키지 않고,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정제작업을 반드시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텍스트 문치에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 내고, 키워드 간의 정보의 연계성을 파악한 후 텍스트의 카테고리를 찾아내거나 단편적인 정보검색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Kang, Kim, & Park, 2012: 26).

셋째,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출현 키워드와 빈도를 파악한 후, 텍스트를 활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선정하고, 1-mode 네트워크 행렬을 구축하였다.

넷째, 네트워크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키워드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위하여 연결중심성, TF-IDF 분석, CONCOR 분석을 하였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키워드가 많은 연결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연결중심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TF(단어 빈도)와 IDF(문서 역빈도)를 곱한 값으로 흔하지 않은 단어인데 특정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될수록 큰 값을 가진다. 즉, 어떤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문서 전체에서 많이 등장할수록

중요도를 낮게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ONCOR 분석은 기존의 키워드 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하는 빈도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키워드 간 형성된 군집 형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구조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빅데이터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다섯째, 1-mode 네트워크 행렬을 UCINET 6의 NetDra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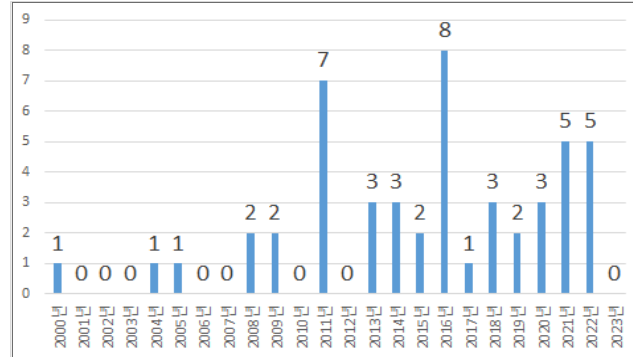
1. 연도별 가톨릭교육 연구 현황

연구의 분석대상인 가톨릭교육에 관한 학술지를 연도별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분석 대상 논문 수
<Table 1> Analysis of Annual Paper Counts

연도	논문 수	비율(%)	연도	논문 수	비율(%)
2000년	1	2.04	2012년	0	0
2001년	0	0	2013년	3	6.12
2002년	0	0	2014년	3	6.12
2003년	0	0	2015년	2	4.08
2004년	1	2.04	2016년	8	16.33
2005년	1	2.04	2017년	1	2.04
2006년	0	0	2018년	3	6.12
2007년	0	0	2019년	2	4.08
2008년	2	4.08	2020년	3	6.12
2009년	2	4.08	2021년	5	10.21
2010년	0	0	2022년	5	10.21
2011년	7	14.29	2023년	0	0

가톨릭교육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총 49편으로 2000년에 1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전까지 1~2편에 머물던 논문의 수가 2011년 7편 정도로 게재된 후 2016년 8편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후 논문 수가 감소하다가 최근 1~2년 사이 5편 정도의 수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가톨릭교육에 관한 국내 학술지 논문 수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톨릭교육 연구의 논문 수

[Figure 1]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on Catholic Education

[그림 1]을 살펴보면,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종교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단어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자의 크기가 크고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양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2. 가톨릭교육 연구의 키워드 분석

1) 주요 키워드 및 출현빈도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학술지 초록의 출현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에 나타난 키워드의 워드 클라우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가톨릭교육 연구의 워드 클라우드

[Figure 2] Word Cloud of Catholic Education Research

[그림 2]를 살펴보면,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종교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단어가 다른 키워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자의 크기가 크고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양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키워드 출현빈도 상위 50개
<Table 2> Top 50 Frequency of Occurrence Keywords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순위	키워드	출현빈도
1	가톨릭교회	224	18	중요	38	35	고찰	24
2	교리교육	178	19	인성교육	36	36	경험	23
3	교육	169	20	사회	36	37	결과	23
4	신앙	101	21	종교	35	38	영성	23
5	종교교육	87	22	인식	34	39	단계	23
6	그리스도	76	23	인격	33	40	교육자	22
7	연구	59	24	학교	32	41	역할	21
8	제시	57	25	의미	29	42	정체	21
9	인간	50	26	신자	28	43	상황	21
10	복음	49	27	강조	27	44	주제	21
11	한국	49	28	목적	27	45	사목	21
12	관점	44	29	중심	27	46	생명	20
13	하느님	43	30	변화	27	47	교사	20
14	신학	41	31	대학	26	48	시대	19
15	양성	38	32	자신	25	49	형성	19
16	공동체	38	33	신앙교육	25	50	현대	19
17	청소년	38	34	관계	24			

상위 50개로 도출된 출현빈도에 따른 키워드 분석은 해당 키워드가 국내 학술지에 얼마나 많이 다루어졌는지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표 2>를 살펴보면,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 키워드 중에서 ‘가톨릭교회’가 224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리교육’이 178회, ‘교육’이 169회, ‘신앙’이 101회, ‘종교교육’이 87회 등장하였다.

2) 주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및 TF-IDF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 및 TF-IDF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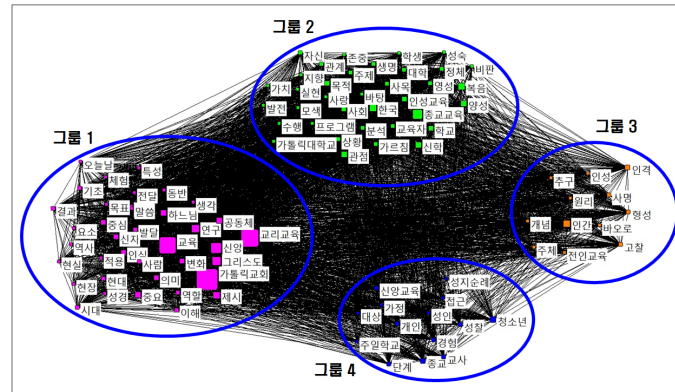
<표 3> 상위 20개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및 TF-IDF
 <Table 3> Centrality and TF-IDF of Top 20 Keywords

순위	연결중심성		TF-IDF	
1	가톨릭교회	46.732	종교교육	115.438
2	교육	40.692	청소년	86.731
3	교리교육	38.676	한국	61.385
4	신앙	23.217	신학	61.251
5	그리스도	18.673	인격	59.808
6	종교교육	15.008	대학	54.602
7	한국	13.584	성지순례	54.485
8	연구	12.525	신앙	52.977
9	제시	12.311	인간	52.930
10	복음	11.432	그리스도	51.144
11	신학	10.981	양성	50.421
12	인간	9.954	교육자	50.212
13	관점	9.668	교리교육	50.001
14	공동체	9.155	복음	49.071
15	양성	9.064	신앙교육	48.648
16	하느님	8.968	교육	47.473
17	사회	8.225	하느님	45.520
18	인격	7.976	단계	44.756
19	중요	7.528	연구	44.623
20	청소년	7.421	신자	44.499

우선 상위 20개로 도출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톨릭교육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다수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다른 키워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링크 수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키워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를 분석한 결과,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출된 키워드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은지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써 국내 학술지의 가톨릭교육 연구는 주로 종교교육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인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주요 키워드의 CONCOR 분석

가톨릭교육 관련 키워드 사이의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UCINET을 활용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에 대한 시각화 결과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가톨릭교육 연구의 CONCOR 분석
[Figure 3] CONCOR Analysis of Catholic Education Research

가톨릭교육 연구 관련 CONCOR 분석 결과, 4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그룹별 키워드 현황
<Table 4> Group-wise Keyword Status

그룹		주요 키워드
그룹 1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연구, 제시, 생각, 하느님, 역할, 이해, 중요, 의미, 사람, 인식, 신자, 발달, 말씀, 전달, 동반, 목표, 특성, 적용, 현대, 성경, 현장, 현실, 역사, 요소, 시대, 결과, 기초, 체험, 오늘날
그룹 2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육, 인성교육, 복음, 양성, 프로그램, 교육자, 분석, 가르침, 상황, 관점, 학교, 신학, 수행, 모색, 발전, 가치, 지향, 관계, 존중, 정체, 성숙, 비판, 사목, 대학, 생명, 학생, 영성, 실현, 자신, 주제, 사랑, 사회
그룹 3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전인교육, 인간, 원리, 주제, 개념, 바오로, 형성, 추구, 인성, 인격, 고찰, 사명
그룹 4	실천적 신앙교육	성지순례, 신앙교육, 주일학교, 청소년, 개인, 성인, 대상, 단계, 종교, 교사, 경험, 성찰, 가정, 접근

CONCOR 분석 결과 형성된 4개의 그룹명은 주요 키워드의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공통점을 분석하여 그룹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그리스도’, ‘신앙’, ‘말씀’, ‘전달’, ‘역사’, ‘오늘날’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나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가톨릭대학교’, ‘종교교육’, ‘인성교육자’, ‘복음’, ‘양성’, ‘프로그램’, ‘가르침’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그룹은 ‘전인교육’, ‘인간’, ‘인성’, ‘인격’, ‘고찰’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그룹은 ‘성지순례’, ‘신앙교육’, ‘주일학교’, ‘청소년’, ‘성인’, ‘경험’, ‘성찰’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실천적 신앙교육’으로 명명하였다.

V. 결론

언어네트워크 분석에 따라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RISS에 등록된 가톨릭교육에 대한 학술지 논문들은 2011년 7편, 2016년 8편을 제외하면 매년 5편 이내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연결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그리스도’ 등의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또한 키워드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TF-IDF 분석에서는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톨릭교육 연구 관련 CONCOR 분석에서는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 ‘실천적 신앙교육’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논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가톨릭교육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맥락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교리교육에 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예방교육으로서 종교교육, 시민교육과 종교교육, 생태영성교리, 생명윤리교육 등이 게재되었다. 최근에는 실천적인 가톨릭교육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 전체 논문에 비해 실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CONCO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교리교육의 역사 및 방향’ 그룹을 분석한 결과, 가톨릭교육의 포괄적인 개념에 속하는 단어들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교과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리교육의 변천 과정이나 연구 방향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천적 신앙교육’ 그룹은 키워드의 종류도 적고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단어들도 실천적 맥락을 드러내는 키워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톨릭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맥락의 신앙교육을 위해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후속연구에서는 가톨릭교육에 적합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 시대징표와 교리교육을 연계한 교리교육, 미래사회 종교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교과개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서 종교교과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초고속·초고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문명시대 원주민이기에 기존의 주입식 및 교수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 가톨릭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방법론이 연구된다면 가톨릭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가톨릭 전인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언어네트워크 분석 결과 가톨릭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톨릭교육의 포괄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키워드 및 출현빈도 분석 결과, ‘가톨릭교회, 교리교육, 교육, 신앙, 종교교육, 그리스도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또한 주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에서는 ‘가톨릭교회, 교육, 교리교육, 신앙 등’의 키워드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현 빈도와 연결성이 나타난 이유는 가톨릭교육 개념이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교육은 지식교육이나 건강한 인간관이나 세계관을 구축하는 인성 교육적 측면을 넘어 온전한 인간을 지향하는 전인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초월적인 측면을 다루는 종교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교리교육은 교리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인식과 삶의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돕는다(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2013: 46).

이처럼 가톨릭교육은 태생적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가톨릭교육에 관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학문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융합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교육은 본질적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새로운 학문의 출현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다른 학문과 함께 호흡하는 융복합적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가톨릭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TF-IDF 분석에서는 ‘종교교육, 청소년, 한국, 신학, 인격 등’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TF-IDF 분석은 전체 문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은 한국 청소년의 종교교육, 신학, 인성과 연관되는 경향을 보였다.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에서 연구 대상은 주로 국내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들의 교리교육이나 청소년사목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도 하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평생교육 및 생애주기별 교육으로 기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 범위도 다변화해야 한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가톨릭 전인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CONCOR 분석 결과 가톨릭학교의 전인교육에 대한 키워드가 다른 영역에 비해 빈도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동향에서 전인교육 연구에 관한 논문의 수가 적고, 관련 주제도

다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와 가톨릭교회 문헌에서도 나타나듯이 전인교육은 가톨릭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 전인교육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었지만 가톨릭 전인교육만의 고유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가톨릭계 대학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톨릭 전인교육은 기존의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온전한 인간을 양성하는 특색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다. 가톨릭계 대학교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가톨릭적인 전인교육을 더욱 부각해야 특성화된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자 및 학교의 인성교육’ 영역에서는 가톨릭교육에 대한 연구가 학교의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연구대상은 사제, 교수, 교사와 같은 교육자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톨릭 전인교육이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이지만 학생 중심 가톨릭 전인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습 수요자 중심 교육이 부각되고, 학습자 참여형을 넘어 학습자 주도적인 교육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가톨릭 전인교육의 방법론이 제기된다면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RISS에 게재된 가톨릭교육 관련 학술지 논문의 초록을 언어네트워크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언어네트워크분석으로 연구된 가톨릭학교 연구동향분석과 달리 연구범위를 학교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방법론에서 주요 키워드의 연결중심성 및 TF-IDF, 그리고 CONCOR 분석을 통해 키워드의 빈도뿐만 아니라 연결구조도 분석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 가톨릭교육에 관한 학술지 논문 편수가 적고, 국문 초록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는 배제하여 분석 대상 논문 수가 49편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References

- Apostolic Constitution of the Supreme Pontiff John Paul II on Catholic Universities. *EX Corde Ecclesiae*. 최영철 옮김 (1990). 회보 6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Byun, K. Y., Lee, S. Y., & Kim, S. H. (2010). Trends of higher education policy studies in Korea: Research topics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1), 121-145.
- Cho, B. (2014). Development and Faith Education of Adolescents. *Theological Perspective*, 185, 166-201.
- Cho, Y. K. (2016).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03-128.
- Choi, J. G. (2005). Critical Issues on the Religious Education of Korean Catholic Schools,

-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1, 309-333.
-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for Institutes of Study) (2013). *Educating to Intercultural Dialogue in Catholic Schools: Living in Harmony for a Civilization of Love*.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14).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0. 65-124.
- Im, M. K. (2020).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General Religious Education in Songsim Campus of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2, 29-46.
- Jang, J. W. & Choi, K. H. (2012). Statistics Act Content Analysi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17(2), 53-66.
- Jang, Y. S. (2012). Suicide status and policy task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165, 1-8.
- John Paul II. *Catechesi Tradendae*.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옮김 (1980).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Jung, S. C. (2005). The origin of the kerygmatic Catechesis and Theoretical Foundation. *The Catholic Theology*, 6, 5-48.
- Kang, M. M., Kim, S. R., & Park, S. M. (2012).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g Data,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 30(6), 25-32.
- Kang, W. G., Ko, E. S., Lee, H. R., & Kim, J. N. (2018). A Study of the Consumer Major Perception of Packaging Using Big Data Analysis -Focusing on Text Min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 2233-4890.
- Kim S H., Lee, Y. J., Shin, J. Y., & Park, K. Y. (2020). Text Mining for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26(1), 1-70.
- Kim, D. S. & Kim, Kyung Y. (2019). A Study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Catholic Kindergarten Teacher about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9, 137-170.
- Kim, K. Y. (2004).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ing.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8, 97-119.
- Kim, K. Y. (2011). Multi-cultural Society and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6, 39-72.
- Kim, N. C. (2011). An Understanding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and a Vision for the Religious Education of Youth. *Theological Perspective*, 173, 168-208.
- Kim, N. H. (2018). Reflective Reeducation of the Believers for the Religious Activation of the

- Intermediate Believers. *Theological Perspective*, 201, 157-191.
- Kim, S. I. (2014). The liturgical education of children - From Directorium de missis cum Pueris. *World and word*, 36, 7-61.
- Koo B. M. (2009). Implementing the Mission of Catholic Schools as Manifested in The Catholic School. *The Catholic Theology*, 15, 173-212.
- Koo, B. M. (2011). Directions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in Korean Public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0, 63-100.
- Koo, B. M. (2011). Mission of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in Catholic Schools. *The Catholic Philosophy*, 17, 83-134.
- Kwak, J. S. (2022). The New Directory for Catechesis and Orientations for Youth Catechesis in Korean Church. *Theology and Philosophy*, 42, 193-238.
- Kwon, H. B. & Chun, S. Y. (2013).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4(2), 103-125.
- Lee, H. H., Lee, S. S., Lee, S. S. & Kim, E. J. (2018).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Descriptive Course Evalu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8(2), 237-262.
- Lee, M. S. & Kim K. Y. (2017).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About a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4, 117-143.
- Lee, J. Y. & Choi, J. G. (2023).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Catholic Education: Focusing on KCI Articles Published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2, 21-39.
- Lee, M. Y. (2022). Direction of ecological spirituality catechesis for Catholic Sunday school evangelization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Theological Perspective*, 218, 204-233.
- Lee, W. B. (2016). Meaning and Direction of Value Education in College. *The Catholic Philosophy*, 26, 85-110.
- McSwain, S., Why nobody wants to go to church anymore, The Huffington Post, Retrieved 2024.2.15. from <https://url.kr/tf4iq8>.
- Park J. J. (2021). The Method of Correlation and Catechesis. *World and word*, 49, 21-56.
- Park, J. U, Park, H. N., Jung, S. H., & Lim, K. Y. (202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ersonalized Learning: Using TF-IDF, LDA based Text Mi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4(4), 711-739.
- Shim, S. T. (2009). A Reflection on the theological Education of Korea Catholic Universities and its Perspective. *The Reason and the faith*, 40, 155-194.
- Sung, K. S. (2001).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lan and Religious Education of the Catholic

-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83-101.
- The Second Vatican Council. *Gravissimum Educationis*.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옮김(1963).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Won, J. C. (2005).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the role of Catholic schools: Focusing on the spirit of the Vatican II Council.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2, 98-138.
- 원종철 (2011). 가톨릭교육과 인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Won, J. C. (2011). *Catholic Education and Humanity*. Catholic Publishing Company. Seoul: Catholic University Press.